

전주형 사회주택으로 주거문제 해결

전주시가 서민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주택을 짓거나 매입해 주거취약계층 및 서민들이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주형 사회주택이 보급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25일 전주도시혁신센터 1층 교육실에서 전주시 주거복지네트

주거취약계층·서민 공급 장기임대주택 시, 주거복지 포럼 개최... 추진방안 논의

워크 관계자와 시장정책연구원, 시의원, 시민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 주거복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서민주거 문제 해결책이자 원도심 주거지재생 방안으로서의 사회주택의 가능성과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서민주거 문제 해결책이자 원도심 주거지재생 방안으로서의 사회주택의 가능성과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사회주택의 이해와 운영사

거해 빈집 리모델링 주택과 민관협력형(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다. 공공은 토지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민간은 건축비 등을 부담해 민·관 협력 공급과 공적자금 절약 등 공공성과 사회성이 사회주택의 장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최병숙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의 사회로 강현석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장과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권대환 마을발전소책 지역재생연구소장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차례로 △장애인 주택문제 사례 및 해결방안, △서민 주택문제 사례 및 해결방안, △주거지재생과 사회주택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전주형 사회주택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주거지재생과 사회주택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권대환 소장은 "팔복새마을과 같은 주거복지 또는 도시재생차원의 주거지 재생은 노후주택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미흡한 주택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사회주택 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도로개설을 위해 집을 매도해야 하는 주민이 경제적 손해를 당하지 않으면서 주거안정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택협동조합, 순환형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이 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회주택이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주거지 재생 사업은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공공정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면서 "사회주택이 공동정책으로 하루빨리 도입돼야 도시재생을 비롯한 공공정책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예술상' 수상후보자 접수

내달 18일까지 10개 부문

전주시가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예술인들을 발굴해 시상한다.

전주시는 전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전주시 예술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11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90년 제1회 시상을 시작으로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하는 '전주시 예술상'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총 167명이 이상을 수상했다.

접수부문은 문학, 음악, 국악,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연예, 건축 등 10개 부문이며, 시는 각 부문별 1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 후보자는 공고일(2016년 10월 24일) 현재 전주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있는 자로서 전주시 문화예술발전예

현재의 공적이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전통문화과(063-281-253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수원시 새마을회장단, 전주서 워크숍 개최

자매도시인 전주시와 수원시가 경제·문화·교육·체육·인적 교류 등에 이어 민간 영역까지 교류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수원시 새마을회장 및 새마을단체장, 새마을회 이사, 각종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된 수원시 새마을 회장단 150여명은 25일과 26일 1박 2

일 동안 전주시 일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한다.

전주시와 수원시는 지난 7월 수원시청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후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에는 전주시 대표단이 참석하는 등 최근 교류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미숙아 치료 산실

퇴원한 15가족 40여명 초청 '이른둥이 홈커밍데이' 행사 가져

23주 6일 만에 640g으로 태어난 은우(11개월), 27주 1일만에 990g으로 태어난 소현(7개월), 28주에 1115g으로 태어난 하빈(14개월), 28주 3일에 1360g으로 태어난 예훈(6개월), 30주에 1285g으로 태어난 지환(17개월), 27주 3일에 태어나 지금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지호(7세).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예정보다 일찍 세상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모두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무사히 집으로 퇴원했다는 것이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최근 어린이병원 내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아이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축하행사를 가졌다.

지난 8일 어린이병원 2층 완산홀에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전주를 비롯해 정읍 군산 멀리 전남 장흥에서 온 15가족 40여명이 '이른둥이 홈커밍데이' 행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어린이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주최

로 열린 이 행사는 아이들의 무사 퇴원과 건강한 성장을 기리는 자리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진행,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소아청소년과 김진규 교수가 '이른둥이 건강하게 키우기'를 주제로 퇴원한 아이들의 건강관리법을 전달했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육아비법 등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 아이들을 위한 미술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프로그램 중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들이 제작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하루를 담은 동영상은 본 부모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싸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눈시울 붉히는 등 감동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전북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 이후 입원율이 2012년 139명에서 2015년 745명으로 늘었고, 1500그램 미만 극소저체중아의 생존율도 2010-2012년 60%대서 운영 이후 81%로 급상승했다.

/김영재 기자



고(故) 백남기씨 부검영장 집행 중단하라

진압에 막히자 서한문을 찢고 있다.

25일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지방경찰청 입구에서 고(故) 백남기 씨 부검영장 집행을 중단하며 항의시위를 전담하려 했으나 경찰의

'만수무강 건강법으로 무병장수 하세요'

전주시, 김소연 무병장수연구소장 초청 열린시민강좌

전주인문학 365, 제151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25일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강좌에는 한의학 박사이자 방송가를 중흥무진하며 건강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김소연 무병장수연구소장이 강사로 초청돼 '만수무강 건강법'을 주제로 무병장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만수무강 비법을 소개했다.

김 강사는 특히 "120세 무병장수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유병장수시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쓰이는 요즘, 자신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면서 효과와 효능이 뛰어난 갖가지 건강비법과 자연치료요법, 살림정보 등을 총망라한 정보와 지식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비법들은 자연 속에서 찾아낸 지혜를 담아 전혀 인위적이지 않고, 부지런히 실천하면 누구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 조석중 전주독서동아리 연합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독서토론큐에서는 감사와 시민과의 소통시간이 마련됐다. 또, 재능기부 공연으로 2015년 3월에 우쿨렐레를 좋아하고 즐겁게 연주하는 북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여 결성되어 현재 요양원과 관공서 등에서 재능봉사하는 'atto 키즈 우쿨렐레 오카리나 앙상블'의 우쿨렐레&오카리나 공연도 펼쳐졌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법무과장은 "전주시는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 강좌를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열린시민강좌는 삶의 풍요를 가져오는 강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 통장 훔쳐 인출한 40대 입건

이별한 여자친구의 통장에서 몰래 현금을 인출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5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9월4일 오전 11시께 익산시 신동 B(43·여)씨의 집에 들어가 통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의 통장을 훔친 A씨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훔친 진씨의 통장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재 기자

